『자유론』 발제문

손승연

1. 개별성의 가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별성’에 대해 논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다양한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다시 말해 각각의 독창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개별성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그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는 개별성에 대해 타인과의 다름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관점으로 주목한다.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은 단순히 교육, 가르침과 같이 어느 정도 관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교육, 가르침 등이 타인을 더 나은 방향을 이끌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을 수용하는 대상이 자신의 개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타인의 경험을 수용함에 있어서 ‘첫째, 단순히 지엽적이거나 자신의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 둘째, 타인의 것이 무조건적으로 어울릴 수는 없다는 점, 셋째, 타인의 것을 단순히 좋아서 수용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한다. 이는 다시 말해 그는 위 세 가지 행위에서는 개별성이 표현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본 책에서는 ‘욕망과 충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통념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욕망과 충동은 개별적인 특성의 하나로 고려됨으로써 자유와 다양성이자 표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근원은 욕망과 충동이 아닌 ‘양심이 약한 것을 문제’로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 나간다.

관습 중에서도 ‘지위’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자유의 주체인 본인 다시 말해 ‘개인’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 위치’에, ‘내 신분’에 관점을 두고 검열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산다고 서술하며 관습적인 관점에서 묶이기 보다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안는 선에서 자신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1. 쟁점이 되는 문제
2. 최근 <책 읽어 드립니다> 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 도서를 설명해주고 읽어주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을 통해 책을 접한 많은 시청자들이 책을 이해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이해 방법은 ‘개별성’을 가진 이해 방법일까? 혹은 그저 관습을 따르는 방법에 불과할까?
* 한 사람이 정해진 책에 대해 설명함 -> 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기 보다는 증명된 해석이라는 관점으로 책을 수용함으로써 본 해석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져 개별성을 잃게 됨.
* 타인의 것을 바탕으로 책을 알게 되지만 경험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대상이 개별성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생각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개별성을 표출하는 동기가 됨.
1. 평등사회인 현재 우리는 ‘지위’와 ‘신분’의 관습을 벗어나 자유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위와 신분의 관습에 휩싸여 있을까?